

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관진 /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배부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라. 진실로써 거짓을 이기라. (법구경)

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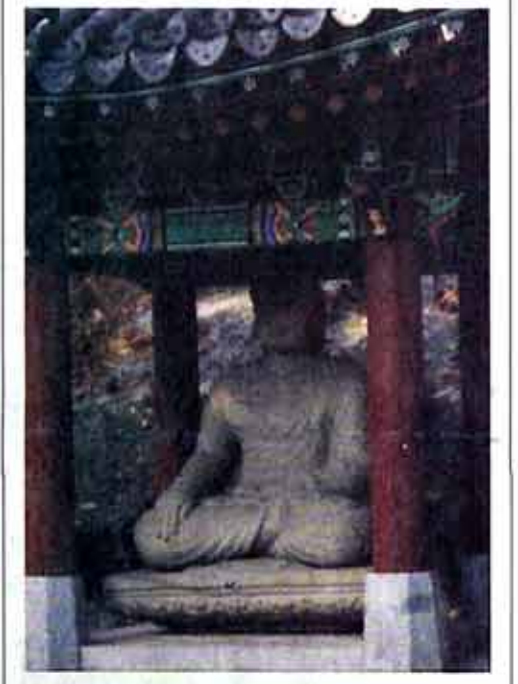
- 삼천사 359-7766
 초하루 법회 매월 1일(음)
 지장기도일 매월 18일(음)
 부부가족법회 매월 1-3주 일
 특별기도일 매월 16일(음)
 청년법회 매월 1-3주 일
 청룡사 763-4031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어린이법회 매월 일 오전 10시
 성주암 877-7180
 거사법회 매월 일 새벽 6시
 한수경 강사 매월 1-3주 일
 지장경 강사 매월 2-4주 일
 청년법회 매월 1-3주 일
 안양암 763-8352
 신도법회 매월 초상일(음)
 만일법회 매월 18일(음)
 청년법회 매월 둘째 수 오후 7시
 사천암사 939-3900
 보살계법회 11월12일 오후 7시
 어린이 법회 매월 토 오후 3시
 청년법회 매월 토 오후 6시
 화엄법회 매월 셋째 수 오전 10시
 관음암사 793-8075
 일반법회 매월 1일(음)
 보행법회 매월 15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대한불교진흥원 719-1855
 다산암회 매월 넷째 수 오후 2시
 (11월 법사 해장스님)
 안양 삼막사 (0343)71-5978
 동인계백암/도 11월17일-05.2.17
 교리 법회 1-3주 일 12시
 초하루 법회 매월 1일(음)
 경복상주 남장사(0682)34-6331
 초하루 법회 매월 1일(음)
 보름 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장묘제도 개선 “용두사미” 보사부 법안 2년째 표류

종교계 추진 영탑·납골당 조성 큰 차질

장묘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사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정책입안자들의 안일과 무소신으로 2년째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교계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탑, 납골묘 조성이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등 국민과 후손을 위해 10여년간 준비한 정책이 허무아함에 유감무실해지게 됐다. 특히 불교계는 정부가 제안한 화장장에 적극 찬성하면서 영탑



청와대 안의 부처님 잇따른 대형사고와 관련 ‘대통령이 청와대 내의 불상을 치웠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불상의 견제」를 해명했다. 관심의 초점이 된 이 불상은 높이 110cm의 석조 좌상으로 일제때 테라우치 총독이 경주 남산에서 옮겨다 놓은 것이다. 89년 노태우 대통령 관저를 신축하며 위쪽으로 50cm쯤 올려 놓은 이 불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불교방송 보도국의 기사가 찍은 것이다.



“부처님 머리숙여 참회합니다” 동국대 국문과 학생 1백여명이 지난 2일 학생들의 교수폭행을 시정하는 집회를 갖고 본관 잔디밭 불상 앞에서 참회의 백팔배를 하고 있다. 동국대는 이번 사건으로 2명의 학생을 제적시키고 5명의 학생을 학칙에 따라 무기정학 시켰다. 또 이사건과 관련 보직교수 29명 전원도 보직 사퇴서를 냈다. (관련기사 15면)

목어
 “유체 이런 일이”
 살갑 나는 말이다. 어떻게 대학생이 교수를 폭행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종립대학의 부처님상 앞에서 스님을 말이다. 「심심(攝心) 신실(眞實) 자애(慈愛) 도세(度世)」 이것이 동국대학교의 교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 지고한 교훈은 만신창이 되고 말았다. 만신창이 된 것은 교훈뿐이 아니다. 동국대성과 교수, 이사진, 종단 그리고 모든 불자들을

의 얼굴이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 든다. 어찌다 여기까지 왔는가. 과원과 부도덕의 사회상이 이제 불교집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동국대는 ‘타종교인 교원이 있다.’ 학생들 가운데 타종교 동아리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란 소문과 실종된 불상의 회복을 위해 맹목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종립대학에 대한 종단의 참여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종립대학은 불교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견학이념이 실종된 종립대학

일요법회가 정착되고 있다

전국 3백여 사암·포교당서 실시

일요법회를 비롯해 매주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으며,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전남북·공주지역에 45개 사암·포교당이 매주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법회 내용은 어린이·청년·거사법회에서 근인법회·교리강좌·참선법회·가정법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법회는 서울의 영화사 정다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이

지상법석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8·9면 불교 TV 주식공모에 가족 3대 동참 14면

* 이란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 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鐵에도 생명을 담고 싶습니다

셋덩어리는 그대로 두면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쇠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쇠에 혼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
 저희 포항제철이
 쇠에 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공기처럼
 국민의 기업, 포항제철은 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포항제철